# "生과 死…인생의 해답 품은 족보 큰 깨달음"

명사의 서재

⑬ 김병조 개그맨·고전교육자

"족보를 통해 역사의식을 배우곤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한 사람도 생과 몰 그리고 간략한 행적 한두 줄로 정리가 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답이 그 안에 있지요."

조선대 평생교육원과 교육대학원에서 명심보감을 강의하는 김병조(63) 씨. 그는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책으로 족보를 꼽는다. 전남 장성이 고향인 그는 어릴 때부터 선친의 영향으로 한학을 공부했다. 선친은 고향에서 유명한 서당 훈장이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소학', '사서삼경', '명심보감'을 배웠다.

## 훈장님 아버지 영향 한학 공부
## 소학·사서삼경·명심보감 배워
## 조선대서 명심보감 강좌 큰 인기

김병조 씨는 개그맨으로 활동하던 시절에도 꾸준히 한학을 공부했다. 언젠가는 후학들에게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고전을 가르치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

그는 80년대 최고의 개그맨이었다. 잠시, 80년대 중반으로 추억의 채널을 돌려보자. 김병조 씨는 잘나가는 '일요일의 남자'였다. MBC '일요일 일요일 밤' 진행자로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당시 예능프로는 지금처럼 다수의 연예인이 호흡을 맞추는 '집단 진행'이 아니라 메인 진행자 한명이 프로를 이끄는 방식이었다. 간판 MC였던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는 대목이다.

그와 함께 그렇게 한 시대를 건너왔다. 상심으로 얼룩진 지역민들에게 그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공중파에서 자취를 감췄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환갑이 넘은 지금에도 산발한 '배추머리'를 하고 있을까.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던 얼마 전, 그를 만나러 서울로 향했다. 그는 조금 살이 빠진 모습이지만, '배추머리'는 잘 다듬어져 있었다.

"매주 수요일 서울 용산에서 6시 KTX를 타고 광주에 내려갑니다. 15년간 단 한 번도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았죠. 항공편은 상황에 따라 결항할 위험이 있잖아요."

조선대에서 명심보감을 강의하게 된 연유를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다. 그의 한학에 대한 깊이와 열정은 단순한 교양 수준이 아니었다. 오전에는 평생교육원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교육대학원 학부생들을 지도한다.

명심보감은 고려 충렬왕 때 추적이라는 학자가 쓴 고전으로 유불선이 망라돼 있다.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해 여러 고전에서 좋은 문구를 발췌했다. 그는 '명심보감' 외에 '논어'와 '한국인물유학사'도 많이 읽었다.

전자는 공자와 제자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책으로 삶과 처세, 입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후자는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유학자 103인의 생애와 사상이 오롯이 담겨 있다.

개그맨이 된 후 그는 승승장구했다. 한마디로 잘 까불었다. "지구를 떠나거라", "나가 놀아라", "떫으요" 등 수많은 유행어를 히트시켰다. 전라도 말로 그는 '귄 있게' 놀았다. 그가 트레이드마크인 곱슬머리를 '배추머리'로 희화화할 때면 너나없이 웃음을 터트렸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급전직하했다. 87년 6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정당 대통령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민정당은 정을 주는 당이고, 통일민주당은 고통을 주는 당"이라는 발언이 계기가 되었다. 설화였다.

그 말은 지역민은 물론 그를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에 비수로 꽂혔다. 그는 "지시에 따라 사전 대본을 읽었다"고 했지만 많은 이들의 공분을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모두가 인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기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불려갔던 것이고… 그때 비로소 깨달았지요. 인기란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거듭된 사죄에도 비난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모든 프로에서 하차했다. "처세불구무나 세무난즉교사필기 (處世不求無難 世無難則驕奢必起).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운 일 없길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어려운 일 없으면 교만하고 사치하게 된다."

그는 설화를 계기로 오랜 시간 숨죽이며 살았다. 이후 지역방송을 살리자는 낮은 마음으로 고향에 내려와 방송을 했고 그 무렵 조선대에서 명심보감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그는 재미와 내실이 있는 강의를 지향한다. 개그맨 같은 교수, 교수 같은 개그맨을 꿈꾼다. 그의 달력에는 삼성전자 등 내로라하는 기업체, 관공서의 특강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다.

그는 언젠가 방송에서 "개그맨 유재석이 제일 무섭다"고 했다. 이유인즉슨, 메뚜기가 배추를 갉아 먹을까봐 그렇단다.

많은 이들은 한국인의 대표 채소 '배추'를 좋아한다. 그처럼 '배추머리' 김병조가 앞으로도 웃음과 영향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 광주는 그날 '희망'을 쐈다

지난 5일 밤 9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필리핀 가수 지넬 비하그 롤댄이 자국의 전통음악에 맞춰 엉덩이를 실룩 거리며 등장하자 객석 여기 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관객들의 격한 '리액션'에 자신감을 얻은 가수는 전통민요 '오르데에'를 열창하며 오케스트라와 함께 멋진 공연을 선사했다. 낯선 타국에서 가족과 친구를 그리워 하는 해외거주 필리핀 노동자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내용의 노래였다. 간절한 마음이 통했을까. 객석의 관객들은 난생처음 들어본 필리핀 민요에 장단을 맞추며 한마음으로 무대를 즐겼다.

그 뒤를 이어 등장한 싱가포르 가수 카이룰 아프완 로히쟌의 '싱가푸라' 공연 역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땅 싱가포르를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노래는 깊은 인상을 주었다. 비록 가사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서정적이면서도 격정적인 오케스트라 연주는 관객들을 무대안으로 빨아 들였다. 싱가포르 사람들의 애창곡이 광주에서도 '통하는' 순간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의 이날 공연은 감동과 소통의 무대였다. 아시아 오케스트라는 한국의 가야금, 미얀마의 사웅, 인도네시아의 감방 등 11개국 52종 79개 전통악기로 구성된, '세상에 하나 뿐인' 다국적 교향악단. 오는 2015년 개관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상설 콘텐츠로 키우기 위해 지난 2009년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공식출범했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피날레 무대 '사랑해요 아시아'였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의 한국어 가사를 아시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 구성한 곡은 한국의 휘모리 장단에 각국의 민요선율을 입혔다. 음악과 함께 무대 상단의 스크린에 각국의 언어가 비치자 관객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노래했다.

이날 아시아 오케스트라 공연은 '갈 길 잃은' 아시아 문화전당에게 한줄기 빛을 던졌다. 지난 4월 아시아 문화개발원이 내놓은 전당의 콘텐츠가 구체성과 대중성이 결여돼 시민들과 소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아시아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광주는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전당에서만 즐길 수 있는 색다른 볼거리로 승부한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서다. 이런 기자의 마음을 읽었는지 함께 공연장에 간 지인이 한마디 건넨다. "이런 게 광주에 사는 즐거움 아닐까."

〈편집국 부국장·문화선임기자〉

# 광주박물관 '무등산 분청사기' 도록 발간

국립광주박물관은 '광주 충효동 요지'(사적 제141호) 발굴조사 50주년 기념 '무등산 분청사기' 도록을 발간했다.

전체 272페이지(230×285㎜·반양장)에 달하는 이번 도록에는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무등산 분청사기'(7월23일~10월13일) 전시품과 미공개 출토품 등이 수록됐다.

754컷에 달하는 방대한 컬러 도판이 실려 있어 충효동 요지에서 출토된 여러 가지 도자기의 특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도록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됐으며 무등산 충효동 가마와 발굴조사 과정, 다양한 기법의 충효동 분청사기, 분청사기 외 생산된 충효동 도자기, 충효동 도자기의 양상, 충효동 도자기의 역할 등을 다루고 있다. 가격 3만원.

/김경인기자 kki@

# 광주, 카자흐스탄 동포 총체극 공동 제작

## 13일 알마티 현지공연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을 위로하기 위한 광주와 카자흐스탄 고려인 예술인들의 공동총체극 '술래소리'가 만들어진다.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9일부터 16일까지 7박 8일 동안 2013아시아문화예술교육교류사업 '한민족 이음학교'를 진행한다.

한민족 이음학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한국교육원(원장 이견호)과 협력해 현지 예술인 50명과 광주의 대표 문화예술단체인 놀이패 신명 단원 4명이 총체극 공동창작 워크숍을 진행한 뒤 그 결과물로 13일 알마티한국교육원 공연장에서 합동공연을 올린다.

공연은 딸띄꾸르간 아침노을 예술단의 북춤, 알마티학생예술단의 난타, 알마티비둘기무용단의 부채춤, 한국 놀이패 신명의 봉산탈춤에 이어,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창작극 '술래소리'를 한국어로 공연한다.

놀이패 신명은 현지 노인대학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한량무를 가르치고 고려인 관객에게 탈춤, 풍물, 판소리가 결합된 전통 연희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62-670-5764.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ASSET KOREA since 2005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용산동 웨딩홀
대지권 1924 ㎡ 건 물 3290 ㎡
감정가격 47억3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 지 3198 ㎡ 건 물 1107 ㎡
감정가격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3억

화정동 예식장
대 지 1094 ㎡ 건 물 4489 ㎡
감정가격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매진행중이거나 정지중인 물건을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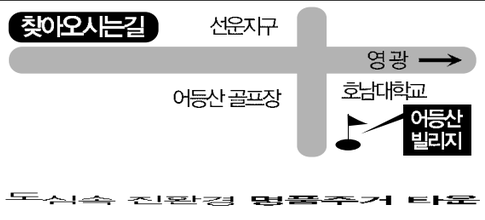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굿모닝타운 분양 사무실)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 · 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 입니다.
2. 각 필지별 상 · 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도심속 진짜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36억
• 사우나건물(8층) 매 17억5천(보증금 8천, 월800만)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 첨단 구분점포 105㎡ 매 8억6천 (보증금 8천, 월430만)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나주 혁신도시인근 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광산구 신창동 생산녹지 1,980㎡ 매 6억5천 (창고,공장 적합)
•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8억4천 (펜션,귀농지,전원주택용지 적합)
•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 (대 660㎡, 신축주택포함)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 (연수원,요양병원,관광농원 적합)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 (바다전망,전원주택,펜션 적합)

기타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 (융 4.5억 포함)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영 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